

# 1989年度 國際學術行事 結果報告



朴 永 文

(大韓電氣學會長, 서울大 教授)

親愛하는 大韓電氣學會 會員 여러분!

지난 여름은 혹서의 日候와 政治的, 社會的인 激動으로 짐철된 나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學會는 年例的인 夏季學術大會 외에도 3건의 國際學術行事を 大過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會員여러분의 獻身的인 努力과 政府 有關機關 및 產業界의 아낌없는 支援 덕분이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行事を 준비하기 위한 行次要員 및 論文투고자를 비롯한 會員 여러분의 刻苦의 努力과, 有關機關의 財政的 支援이라는 代價를 치루었으나 그 反面, 우리 學회의 國際競爭力強化와 發展하는 우리나라의 實像을 國際社會에 널리 弘報하는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는 肯定的 側面이 더욱 크다고 自評하고 싶습니다.

韓國科學財團과 日本學術振興會의 支援으로 지난 5월 26일과 27일 兩日間에 서울 웨라톤 위커힐호텔에서 開催한 韓日電力電子 學術會議은 원래 小規模의 會議을 計劃하였으나, 約 60여편의 論文과 400여명의 參加者로 큰 盛況을 이루게 되었으며 特別히 產業界로 부터 큰 呼應을 받았습니다. 會議組織에 直接 關여하고 추진하였던

朴晄鎬 前會長任과 黃煥文 副會長任에게 特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4일 부터 18일까지 5일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는 韓國科學財團과 美國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支援으로 Korea-U.S.A Joint Seminar on Expert Systems for Electric Power Systems의 韓美合同 세미나가 開催되었습니다.

이 會議은 2박 3일간의 울산, 포항지구 産業視察과 兩日間の 세미나로 이루어 졌는데, 會議의 性格上 이 會議은 國際的 協同研究가 요망되는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專門分野에 있어서의 相互間的 研究結果 比較檢討와 未來에 있어서의 研究方向을 集中討議 및 建議하는 취지인 만큼, 韓國側의 11편의 論文과 美國側의 10편의 論文 發表가 있었고, 마지막 패널토의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研究課題의 選定, 兩國 要路에의 建議文作成, 韓美合同研究프로젝트의 選定 등의 深度있는 會議가 進行되었습니다.

특히 産業界 視察中에는 韓國側에서 여러 관련 인사들이 同行하여 個別的인 親交와 情報交換이 自然스럽게 이루어진 點도 큰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美國側 參加者는 이 分野에 있어서의 指導的 人士가 大部分이었고 EPRI側에서는 Power System Planning 分野에 있어서의 expert system의 活用研究課題에 대한 共同研究의 제의, Carnegie-Melon大學의 Talukdar 教授의 大學間的 交流, 情報交換제의, Argon National Laboratory의 Urig 박사의 韓國 原子力發電所運營에 있어서의 Expert system의 活用권고 등의 有益한 이야기가 特記할만 합니다. 이 會議의 參加者는 約150名 程度이었습니다.

8월 22일 부터 25일까지 4日間 역시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는 IFAC Symposium on Power Systems and Power Plant Control의 汎世界的 國際會議가 韓國電力會社와 共同으로 大盛況리에 開催되었습니다.

이 會議은 開會式, 4個全體會議, 34個分科會議, 産業展示會, 産業界視察 등으로 구성되고, 外國 參加者 約150名, 國內參加者 約 250名이 참가하였고, 37個國 174편의 preprint와 final program에 따라 會議가 進行되었습니다.

開會式에는 政府側에서 李鳳瑞 동력자원부장관님과 韓電側의 安秉華사장님, 高明三 IFAC 國內委員長, 한국과학재단側의 鄭根謨이사장님의 祝辭 및 歡迎辭 등이 會議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外國에서는 電力系統 및 發展所制御에 관련된 世界的 권위자와 指導級 人事가 대거 參加한, 참으로 빛나고 뜻깊은 會議였다고 自負하고 있습니다.

國內外的 水準높은 論文 및 招請人士들의 열띤 講演에 直接 接觸으로써 얻은 最新 知識과 情報의 國內波及效果가 컸음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로비 또는 기타 장소에서 個別的으로 많은 親交를 맺음으로써 얻은 부수적인 수확도 前者에 못지 않

게 至大한 것으로 判斷됩니다. 한편, 參加한 外國人의 우리나라의 經濟發展相과 會議준비 및 進行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고, 外交的인 수사를 감안하더라도 구라과의 中進國以上이라는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논문모집, 심사결과의 통고, 여권, 비자발급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書信처리의 신속성은 어느 先進國 보다도 훌륭하였다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發表論文에 관한 事項을 말씀드리자면, 論文抄錄(abstract)은 約 380편 접수하여 IPC(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의 심사결과 약 250편이 통과되었고, 이 중에서 다시 論文原稿(full paper)를 받아 역시 IPC에 의하여 174편의 論文이 채택되었고, 이를 preprint(約 1,150 페이지)로 편집제본하여 행사시 배포하였으며, 行事後 다시 심사하여 86편의 最終論文이 채택되었으며, 이 原稿는 IFAC의 official publisher인 Pergamon社에 送付하면 6個月後에 全世界에 有料로 配布되게 日程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極히 우수한 論文은 再심사를 거쳐 IFAC의 唯一한 Journal인 "Automatica"에 게재됩니다.

그리고 次期 IFAC Symposium은 1994년에 開催하기로 잠정결정하였으나, 開催國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國際會議, 특히 IFAC Symposium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주신 會員 여러분 및 李鳳瑞 동력자원부 장관님, 金世鍾 전력국장님, 安秉華 한전사장님, 李宗勳 부사장님, 한국과학재단의 鄭根謨이사장님, 산학협동재단의 南應祐이사장님과, 辛基祚사장님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李教璿사장님을 비롯한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 安宇熙소장님을 비롯한 한국전기연구소, 文熙晟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成樂正 경인에너지 사장님, 金德鉉 신일산업 사장님, 尹甲求 에이스기술단 회장님, 金柱琿 현대중전기 사장님 등 IFAC에 協力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합니다.

그리고 IFAC行事的 實務에 盡力하신 學會 國際담당 學術理事 李章揆教授, 韓電側 卞應變部長任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89年 9月